

GM대우 비정규직 신년 투쟁선포

⌕ 금속노동자 | ⌚ 승인 2011.01.07 14:36

| "느긋하게 끝까지 싸웁시다"



▲ 1월6일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신년 투쟁 선포식'이 열린 GM대우 부평공장 앞 농성장에 장작 불이 타고 있다. 영하10도를 밀도는 소한 추위를 잠시 잊게 해준다. 정문 위에서 농성중인 두 노동자에게 이 장작불의 온기는 전달되지 않는다. 허나 장작불 옆에서 언 몸을 잠시 녹이는 연대 노동자들을 보며 두 노동자는 마음 속 난로에 불을 지핀다. 신동준

1월6일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신년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18일째 단식 중인 신현창 지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싸우겠다. 느긋하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신년 결의를 밝혔다. 공장 정문 위에서 농성 중인 황호인, 이준삼 두 조합원도 “아직 괜찮다”며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과 각 단체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투쟁사에 나선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회사가 소식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회사가 소식지에서 ‘9명 선별 복직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받아들였으나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고 선전해댄다”고 분노했다.

전본부장은 “금속노조는 회사와 면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민주노총도 이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히고, “시간을 끌어 강제 진압 명분을 쌓고 대책위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회사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인천시의원, 구의원 등이 참석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GM대우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1월6일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신년 투쟁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 1월6일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열린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신년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정문 위에서 농성 중인 황호인, 이준삼 두 조합원에게 "동상 걸리지 않았냐"고 묻고 있다. 신동준



▲ 1월6일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신년 투쟁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 1월6일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열린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신년 투쟁 선포식'에서 18일째 단식 중인 신현창 GM대우비정규직지회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 1월6일 GM대우 부평공장 앞에서 열린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신년 투쟁 선포식'에서 민중가수 이썬 씨가 공연하고 있다. 신동준



▲ 1월6일 공장 정문 위에서 농성중인 이준삼 조합원이 투쟁선포식에서 외치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동자 ilabor.org